

완주군, 자살예방활동 본격화

삼례 신평마을 등 146가구 농약안전보관함 등 보급

완주군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농촌 지역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안전 보관함을 보급하고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자살예방활동을 추진한다.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농촌지역 자살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농약 음독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9일 삼례읍 신평마을을 시작으로 진행한다.

이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및 생명사랑 녹색마을 참여마을은 삼례

읍 신평마을, 화산면 원승마을, 고산면 삼상마을, 고산면 안남마을의 총 4개 마을이며, 총 146가구에 농약안전 보관함과 마을별로 폐 농약용기 수거함을 보급한다.

농약안전보관함에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총동적인 음독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촌지역 가구 중 참여가구를 선정해 주민들이 사용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농약함을 보급하고 대상마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한다.

보관소 관계자는 "삼례읍 신평마을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시작으로 군과 보건소 관계자, 읍면 주민센터 직원들과 해당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눔의 시간을 갖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각 마을 간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설치 지역을 모니터링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 고위험군 발굴, 사례관리 및 캠페인, 생명지킴이 교육,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무주군의회,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의결

이해양 의원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기대"

최근 개최된 제 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해양 의원(사진)이 의원발의하여 상정된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 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시급하며, 열악한 지원규모 이후원과 지원봉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과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무주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 발의는 열악한 지원규모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시설운영미비, 돌봄 및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격차해소와 사회적 문제인 양극화 현상이 극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조례발의를 위해 2차례 걸쳐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조례발의에서 통과 과정까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본회의장에 나와 방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6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측은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무주군의회에 감사하며, 앞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복지에 보다 큰 관심과 미래에 투자하는 바른 성장과 복지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어 크게 기쁘다고 전하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향로 진안군수, 내년도 국비확보 '쟁걸음'

기재부·환경부 등 방문

이향로 진안군수는 9일 내년도 국가 국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실 등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이 군수 일행은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국가사업 추진(405억원)과 진안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155억원/17년 국비 10억원)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 대한 추진 계획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권 산림치유원은 산림의 심신치유 효능을 활용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시설로 예비타당성 심사까지 끝난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으나, 기재부가 입장을 바꿔 조성비의 50%만 국가가 보조하고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재정이 어려운 진안군에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기재부 방문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역역 중 노후도 평가결과 시급한 노후 상수관로 62km에 대해 정비하여 수돗물의 누수

를 막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사업비 155억원 중 국비 77억5,000만원(2017년 국비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련부처에 사업 필요성과 계획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한편 진안군은 2017년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 총 55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했으며 이향로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은 전라북도과 공조하여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거나 정책협의회를 통해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장수 산울림색소폰 선율에 빠지다

연주회서 기량 뽐내

장수 산서산울림색소폰과 전주 당사모가 함께하는 색소폰 연주회가 지난 5일 산서 풍물연습장에서 한인석(58) 전주당사모 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산서 산울림 색소폰 연주실에서 열린 이날 연주회에는 회원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산서 산울림 색소폰 한국회 회원의 "무정부르스"를 첫 곡으로 문을 연 이날 1부 행사는 회원들의 합주와 독주가 이어졌다.

1부 행사 후에는 행사장 마당에서 조출한 식사가 준비되어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함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부 행사는 전주에서 초청된 당사모 회원들이 한수 높은 기량을 선사했고 천종이 감사의 특별 연주 시간도 가졌다.

/장수=고판호 기자



5일 장수 산서산울림색소폰과 전주 당사모가 함께 산서 풍물연습장에서 색소폰 연주회를 갖고 있다.

이부섭 산서산울림 색소폰 회장은 "본격적인 영농철 임에도 틈틈이 연습에 매진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색소폰 연주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자"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특별리포트

장수 산서면, 꽃길조성 만전

장수군 산서면이 꽃길조성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산서면사무소 직원들은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제공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페튜니아, 라나큘러스 2,400본을 식재하고 마을 공한지에 꽃잔디를 식재했다.

배형근 산서면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꽃길가꾸기를 전개해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방문객들에게는 청정한 장수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성수, 하우스 감자 출하 '한창'

진안군 성수면(면장박우석) 포동가갯골 유기농밸리지구에서 지난해 12월 시설하우스에 파종한 감자를 지난 1일부터 수확이 한창이다.

수확한 감자는 성수농협을 통해 전주 하나로클럽, 대전 원예청과, 광주 호남청과에 납품하였고, 가격대는 박스당(20kg) 최고(특대사이즈) 4만2,000원부터 최저(특소사이즈) 20,000원으로 평균 28,000원을 받고 있다.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감자는 출하시기를 잘 맞춰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포동가갯골은 가운 없이 이중 하우스를 이용하여 제주도, 김제경찰, 남원 춘향골과 출하시기를 달리하여 실 판매수익을 높일 수 있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산나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치고 있다.

무주군, 불법어업·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31일까지 홍보·계도 병행

무주군이 내수면 불법어업과 산나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관련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한 군은 이날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6월 1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경찰과 불법어업자출감시단 등과의 공조를 통해 집중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으로, 불법 어업이 성행하는 관내 강, 하천 5개 구간에서 △허가, 신고를 득하지 않고 하는 어업행위와 △유어행위 제한을 위반한 사례, △포획금지 기간 등을 어진 사

/무주=전문선 기자

례, △불법어구 및 유해약품을 이용한 어업행위, △폐어구 방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지난 4월 한 달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해온 군은 5월 15일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과 임산물 채취가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무주군의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 울창한 숲을 지켜 그 안에서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들의 노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 안성면 첫 모내기 실시

무주군은 최근 안성면 지역에서 첫 모내기가 실시된 가운데 고�령 영세 농업인 육묘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물량은 565ha 규모로 총 사업비 5억 5천여만 원을 들여 1천 2백여 농가에 2만 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단가는 한 판에 3,300원으로 80%가 군비로 지원돼 농가에서는 660만원 부담하면 된다.

군은 6월 15일까지 육묘공급을 모두 마칠 계획으로 그동안 70세 이상 고령농에게만 지원하던 육묘를 65세 이상의 독거농과 부녀농, 영세농에게까지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어버이날 맞아 쌀 기탁 '훈훈'

장수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9일 쌀을 기탁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이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8명은 관내 독거노인에게 쌀 54포(10kg, 1백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장수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는 그동안 매월 월급의 일부를 모아 이웃돕기 등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노인공경의 마음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모금액의 일부를 독거노인을 위해 쌀을 기탁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